

부모맞춤전도여행 '기차는 행복을 싣고'



2026년 부모맞춤전도여행 '기차는 행복을 싣고'

65세 이상 부모와 자녀 등 440여 명 참석, 50명 세례 제천행 기차에서, 청풍리조트에서, 귀갓길 기차에서 프로그램

전도사역본부가 주최한 부모맞춤전도여행에 65세 이상 부모와 자녀 등 440여 명이 참석했고, 무려 5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번 부모맞춤전도여행은 '기차는 행복을 싣고'를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5월 25일(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65세 이상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차를 타고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리조트로 여행을 떠났다<관련기사 4면>.

제천행 기차에서, 청풍리조트에서, 귀갓길 기차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제천행 기차에서는 가족 레크리에이션, 포스트잇 편지쓰기, 가족사진 찍기, 가족 사연

방송 등을 했다. 그동안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을 고백했다. 제천행 기차에서 작성한 포스트잇 편지와 가족사진을 청풍리조트에 전시해서 참가자 모두가 함께 감상했다.

청풍리조트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다채로운 공연 등이 이어졌다. 가스펠싱어 지미선, 하모니카 연주자 최상미의 콘서트, 여성민

목사의 메시지, 결신 카드 작성, 세례식, 산책 등을 했다. 사회는 가수 이무송 집사가 봤다.

귀갓길 기차에서는 이번 부모맞춤전도여행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세례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했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는 "부모맞춤전도여행에서 인생의 좋은 친구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만나고, 세례 받은 모든 부모님을 축복한다"고 말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2026 마리아행전 '왕의 기도'

6월 10~11일 각 캠퍼스 본당, 12일 양재 사랑홀

2026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오는 6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왕의 기도'(요 17:1)를 주제로 막 오른다.

6월 10일(수)과 11일(목)에는 양재온누리교회 집회 실황을 각 캠퍼스에 전송한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마리아들은 양재 사랑홀, 캠퍼스 마리아들은 소속 캠퍼스 본당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면 된다. 12일(금)에는 양재 사랑홀에 모든 마리아가 모여 연합기도회를 한다.

2026 마리아행전 '왕의 기도'에서는 10일 이재훈 위임목사 '자신을 위한 왕의 기도', 11일 정명호 목사(혜성교회) '교회를 위한 왕의 기도', 12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 '세상을 위한 왕의 기도'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참가를 원하는 마리아들은 5월 31일(일) 주일예배와 6월 3일(수) 수요일전여성예배 이후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 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리아행전에 참가하는 마리아들은 밝은 색 상의와 짙은 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는 "나라와 민족, 가정과 자녀, 교회와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마리아들을 기다린다"고 초청했다.

문의: 02-3215-3667(서빙고)

02-570-7277(양재)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

2026 차세대 '어드벤처' 시작

2026 차세대 '어드벤처(Adventure)' 교사 강습회가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 (수 1:7)를 주제로 시작됐다. 5월 30일(토)부터 6월 27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기도회, 주제강의, 찬양 및 교재 강습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1차 교사 강습회는 지난 5월 30일(토)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에서 열렸다. 서빙고, 강동, 남양주, 평택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들이 참가했다. 2차 교사 강습회는 6월 6일(토) 양재 기쁨홀에서 열린다. 양재, 수원, 양지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들이 참가한다. 3차 교사 강습회는 6월 13일(토) 각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대전, 서산, 부천, 인천, 영종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들이 참가한다. 4차 교사 강습회는 6월 27일(토) 제주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의: 02-3215-3521 / 홍하영 기자

'어!벤처스' 참가자 모집

6월 25일 대회설명회
8월 7일 접수 마감

2026 크리스천 벤처창업대회 '어!벤처스' (대회장: 박기일 장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벤처대회다. 참가신청은 8월 7일(금)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ventures.kr) 또는 하단 QR코드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법인 설립 5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비영리 가능)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단, 팀의 핵심 멤버 1인 이상은 기독교인이어야 하고, 접수할 때 교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회설명회는 6월 25일(목) TIP스타운 S1 팀스홀에서 열린다. 이후 8월 8일(토)부터 12일(수)까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할 12개 팀을 선정한다. 최종 결선 대회는 12월 5일(토) 개최한다.

수상팀에는 총 3천만 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그랑프리팀에게는 상금 1천만 원과 해외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300만 원을 수여한다. 분야별 멘토링, 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의 혜택도 있다.

문의: venture2impact@gmail.com

/ 남현영 기자

온라인 통합 행정 플랫폼 '온케어' 출시

온누리교회 성도를 위한 온라인 통합 행정 서비스 플랫폼 '온케어'가 오는 6월 1일(월) 출시될 예정이다. 온케어는 분산돼 있던 교회 행정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새가족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행사 신청, 교적 정보 확인, 수강 이력 조회, 순 출석 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웹 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의 진리를 단어의 이미지로 알려 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11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붙어있으라”,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헬라어 ‘메노’ (meno)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들어 올리고, 붙잡고, 가지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역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요 15:1).

이 말씀 헬라어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옮기면 “나는 포도나무, 그 참된 것이다”입니다. 강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때로는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거대한 황금 포도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진정한 포도나무는 성전의 황금으로 된 화려한 조각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포도나무가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요 15:2).

농부의 행위를 표현하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자른다’입니다. 둘째, 더 많이 열매 맺도록 가지를 ‘손질하신다’입니다. 첫 번째 동사 ‘자른다’는 헬라어 아이레이(airei)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라 버린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안 됩니다. 아이로(airo)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들어 올리다’, ‘높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 뿐 아니라 갈수록 점점 무거워져서 땅에 처

지게 됩니다. 포도는 땅에 붙어서 성장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땅에 붙어있으면 햇빛도 받지 못하고, 병충해도 쉽게 맞고, 약하기 때문에 땅에 붙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처진 가지를 들어올려야 합니다. 들어 올려서 햇빛도 받고 영양분을 잘 보존하도록 하는 농부의 역할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가지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가지가 불필요하게 자라지 않도록 생장점이 되는 곳을 자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심’이라고 합니다. ‘아이로’라는 동사 자체가 포도 가지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더 자라지 않도록 가지를 치는 두 가지 기능을 한 단어에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손질하신다’는 것은 ‘가지치기’입니다. 영양분이 불필요한 가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농부의 역할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끊임없이 돌보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끝까지 돌보고 챙기는데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붙잡아 주시고, 불필요한 영역을 가지를 치십니다.

“머물러 있으라” 받아들임과 동역자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보혈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깨끗해지도록 하나님이 가지를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과 다 채찍질하신다”고 했습니다. 연단하시고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를 섬세하게 붙들고, 때로는 가지를 치시는 농부 되시는 아버지의 사랑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붙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께 붙은 존재가 되었으니, 붙어있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계속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항한 자로 여기라”고 명령하신 것과 맥락을 같

나를 따르라(2) 붙어있음, 그것이 곧 열매이다

요한복음 15:1~8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도록
그분께 연결되고,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합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우리 행함 이전에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본분은 포도나무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저 받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를 계속 주장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나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가지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으시는 일, 곧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은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분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 드리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느냐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주 혼동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과 활동을 하지만, 사역과 열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분의 가지로서 연결되어 있는가?”, “그분의 가지로서 붙어있는가?”, “그분의 가지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늘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잡혔다”고 말합니다. “그 잡힌 것을 따라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거하는 것, 그분께 붙어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무르라”는 명령은 무거운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 드리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본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열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앞부분에 방점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조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연결되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 된 자로 포도나무에 연결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기도가 삶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통로가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요 15:8).

제자도의 본질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머무르라, 붙어있으라”는 명령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그분의 가지입니다”라고 여기고, 말씀 앞에 늘 귀 기울일 때 나타나는 열매가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고백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도록 그분께 연결되고,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이번 선거가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일까?

대화 중에 누군가가 “이번 선거는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야!”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지난 40년 동안의 모든 선거가 실제로 이전 선거보다 더 중요했고,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일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공포는 우리 문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이번 선거는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야!”라고 말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선거는 정말로 중요하다. 때로는 매우 중요하다. 모든 선거는 결과를 낳으며, 어떤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더 큰 결과를 낳는다. 누가 의회, 대통령실, 지방자치단체 관저에 들어가게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느냐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결혼을 재정의 하는지, 아니면 낙태를 어떤 주에서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지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어린이를 트

랜스젠더 시술 같은 의료적 실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키는지 아니면 어린이에 대한 의료적 실험을 장려하는 법을 만드느냐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외에도 선거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훨씬 많다. 경제에서부터 국가 안보, 범죄와 부패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단지 누가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는지만이 아니라, 그 대통령과 함께 들어와 행정부를 형성하는 수백 명의 보좌관, 기관장, 각료 및 다른 인물들도 중요하다. 선거가 중요하지 않거나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에 누구를 뽑든 상관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일 뿐이다.

둘째, 선거가 전부는 아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치를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만든다. “우리가 올바른 사람을 공직에 앉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다.

또는 “잘못된 사람이 공직에 오르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 사회의 많은 것이 단 하나의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면, 사회에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비정치적 삶의 영역이 붕괴하였음을 보여준다. 정치 사상가들은 이를 ‘국가와 개인 사이의 중간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가족, 교회, 비영리 단체, 자발적 결사체 같이 정치보다 앞서 존재하는 사회 구성 단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개인인 시민과 국가 사이에서 작동하며, 심지어 국가의 과도한 권력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중간 공동체가 건강할 때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강력한 중간 공동체가 없으면 개인은 정부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되고, 일반적으로 정부는 삶의 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중간 공동체가 약해질 때 선거는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이때 선거는 본래보다 더 중요해진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선거의 결과나 특정 후보 혹은 강력한 정부에 궁극적인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최악의 정치적 폭풍 속에서도 미래는 안전하다. 이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극심한 박해를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다.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요 16:33).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누구나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식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이번 선거는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야!”라고 말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선거는 정말로 중요하다. 때로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가 전부는 아니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교육

공교육은 정말 무너졌을까? 기도, 존중, 동행으로 다시 생각하는 교육



이은경 집사
(성북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요즘 “공교육이 무너졌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교권 침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 민원, 입시 경쟁과 교육격차를 생각하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안에는 쉽게 넘길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선생님들은 복잡한 요구와 긴장 속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은 경쟁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학부모들도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 졸인다. “무너졌다”는 말은 때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절박한 표현일 수 있다. 그 문제 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그 표현이 반복될수록, 학교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수고와 기도, 책임의 자리까지 함께 지워지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든다. 교실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려 애쓰는 선생님들,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학생들, 다음세대의 교육을 책임 있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교육은 한 사회가 다음세대를 어떻게 바라

보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국어와 수학만 배우는 게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사람이 존중받는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배운다. 그러므로 교육은 단순히 성적이나 입시의 문제가 아니다. 한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갈 것인가, 우리 사회가 다음세대를 어떤 가치 위에 세우려 하는가의 문제다. 우리가 교육을 말할 때 점수와 진학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는 삶의 태도와 관계의 방식,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질문도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무엇을 먹고 입힐지, 몸과 마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가 먼저 보였다. 그러나 자녀가 자랄수록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익혀가는지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교육을 연구하고 학교 제도를 살피는 사람으로서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학교 교육은 한 아이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아이의 성장과 가치관 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질 수는 없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생명이며, 가정은 가장 일차적인 교육의 자리다. 우리는 자녀의 많은 시간

을 학교와 학원, 여러 기관과 콘텐츠에 맡겨두면서, 정작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해 가는지는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최근 교권 침해의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더 무겁게 다가온다. 교사의 정당한 가르침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는 것은 교사 한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다. 교실의 질서, 학생의 배움, 학부모의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 이 문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중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학생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적 존재이고, 교사는 교육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며,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동역자이다. 학교가 다시 건강해지려면, 교사와 학생과 부모가 서로의 자리를 다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교육공동체의 회복은 거창한 구호보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신앙은 주일의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교사의 수고를 어떻게 대하며, 학교를 위해 어떤 마음을 품는지에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아이들은 성적표나 입시 결과로만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생명이다. 그래서 교육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을 만드는 일에 머물 수 없

다. 한 사람이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 교육이다. 물론 교육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교육을 소중히 여기되 우상처럼 붙들지는 않아야 하고, 학교를 비판하되 포기하지 않으며, 제도를 살피되 사람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교육감 선거와 같은 공적 의제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무관한 일이 아니다. 교육정책은 교실의 분위기와 학교의 방향, 교사와 학생의 관계, 다음세대의 가치 형성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을 특정한 정치적 진영의 논리나 내 자녀의 유불리로만 바라보지 않고, 다음세대의 생명과 학교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살피는 성숙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를 향한 냉소가 아니라 학교를 위한 기도이고, 교사를 향한 요구만이 아니라 존중이며, 자녀를 향한 기대만이 아니라 동행이다.

공교육은 정말 무너졌을까? 어쩌면 무너진 것은 공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을 함께 책임지려는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른다. 기도, 존중, 동행. 이 세 가지 작은 자리에서 교육공동체의 회복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행복 실은 기차에서 만난 예수님

전도사역본부 부모맞춤전도여행 ‘기차는 행복을 싣고’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행복이 반짝였다. 초대한 자녀도, 초대받은 부모님도 기뻐서, 또 감격해서 웃고, 울었다. 지난 5월 25일(월) 전도사역본부가 주최한 부모맞춤전도여행 ‘기차는 행복을 싣고’는 가슴 뭉클한 축제였다. 가장 큰 감동은 행복 실은 기차에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다. “이제 함께 교회 가자”며 복음 전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오랜 기도 덕분에 마음을 연 부모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아름다운 현장에 동행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전도사역본부가 주최한 부모맞춤전도여행에서.

만나러 가는 길부터 설렜다. 어떤 가족들을 만날지 기대감이 차올랐기 때문이다. 오전 8시, 서울역 2층 대합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에도 미소와 기대감이 가득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천국의 축제가 이미 시작됐음을 알 수 있었다. 하늘색 옷을 입은 스태프들의 따뜻한 환대도 눈에 띄었다.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는 김세은 성도(분당B공동체)를 만났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30년이 넘도록 부모님 전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모맞춤전도여행처럼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부모님이 하루빨리 영적인 평안과 강건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행에 오시는 모든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타는 열차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 열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김진태 씨는 딸의 간절한 기도와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고자 이번 여행을 수락했다.

“딸이 같이 여행 가자고 해서 흔쾌히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어제저녁에 딸네 집에서 머물렀는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여행이 너무 기대되고 설렜기 때문입니다. 딸에게 고마웠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번 여행에서 다시 은혜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행복 실은 기차 그리고 사람들

전도사역본부에서 부모님들을 위한 다채로

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 정성이 부모님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물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10분 단위로 스태프들이 돌아다니며 포스트잇 편지 쓰기, 가족사진 찍기,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손을 맞잡고, 손뼉을 치며 오랜만에 함께 웃고 소리치며 마음껏 즐겼다.

곳곳에 전도사역본부 봉사자들의 노고가 숨어 있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태프부터 가족들과 소통하는 스태프, 가족들의 행복한 순간을 촬영하는 스태프, 안내하는 스태프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섬겼다. 지친 기색 하나 없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오직 찬양만 흘러나왔다.

행복 실은 기차를 은혜로 물들인 코너는 ‘음악 방송’이었다. 객실 스피커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과 가족들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는 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편지와 함께 신청한 노래도 흘러나왔다. 그 주인공인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신청한 노래를 따라 부르며 미소 지었다. 또 다른 사연의 주인공 김미연 집사(온민음공동체)의 어머니 백문희 씨는 딸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들으며 지나온 세월이 생각나는 듯 연신 눈물을 흘렸다.

“딸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나를 초대한 그 마음을 잘 압니다. 함께 웃고 떠들며 즐기는 이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쩔 땐 엄마 같기도, 친구 같기도 한 딸과 앞으로도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딸이 초대하면 어디든지 따라갈 것입니다.”

결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던 김미연 집사

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가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사연 편지에 썼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은 어머니만 빼고 가족들 모두 교회를 다닙니다. 어머니도 이번 기차 여행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오후 12시, 호수와 산으로 둘러싸인 제천시 청풍리조트에 도착했다. 그리고 연회장에 마련된 점심 식사를 즐겼다. 콘서트는 모든 가족이 하나 되는 축제였다. 가수 이무송 집사가 노래를 시작했다. 가스펠링어 지미션의 노래와 하모니카 연주자 최상미의 아름다운 연주도 울려 퍼졌다. 흥에 겨운 부모님과 자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도 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기자에게 수많은 가족이 먼저 다가와 가족사진 촬영을 요청했다. 행복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부장)가 메시지를 선포했다.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인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부모님들의 세례식은 감동 그 자체였다. 사전에 온라인(Zoom)으로 세례 교육을 이수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단상에 올라 세례를 받았다. 오래도록 기도하고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을 마주한 자녀들이 눈물을 흘렸다. 자녀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해 받은 부모님들도 함께 울었다. 세례받는 부모님에게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안겨드리는 자녀들도 있었다. 민은주 성도(분당A공동체)도 세례받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내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20년 동안 어머니가 예수 믿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세례받는 모습을 보는데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진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같아서 감격했습니다.”

딸의 고백을 들던 어머니 박금옥 씨가 한마디 거들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딸 덕분에 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를 위해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해 준 딸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딸과 더 잘 지내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후 3시 30분, 서울행 기차가 출발했다. 서울행 기차 안에서도 세례식이 열렸다. 여행하는 동안 마음을 열고 세례받기로 결심한 부모님들이 신청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세례를 신청했다. 이날 세례받은 부모님은 모두 50명이었다.

오후 6시 10분, 행복을 가득 싣은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다. 모두가 행복한 여행이었다. 서로 손을 맞잡고 겨안으며 약속했다.

“이제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성서적 세계관 가진 후보를 선출하자!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자격과 선출 기준에 관하여



김성호 집사
(요셉공동체 멘토,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많은 기독교인이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진리를 오해한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관념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경의 상당 부분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지도자의 분별력, 국제 관계를 다루고 있다. 또한 예레미야가 당시 이집트가 아닌 바빌론과의 관계를 강조했던 것처럼,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과 정책적 결정에 달려 있다.

복음의 핵심은 세상 모든 나라와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는 실체적인 세계관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그리스도의 권위가 미치는 모든 국가와 권력 위에 있으며, 동시에 그 국가 안에서 행사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선언 역시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배타적인 영적 영역에 한정되거나 죄와 육신이 존재하지 않는 천국에만 국한된 곳이 아니다.

정치에 대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세계관 차이

인류 역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은 시민의 문화적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행위이자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에게 행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간의 핵심적인 전쟁터 중 하나이다. 인본주의자들은 “국가자원의 배분권을 주도하는 정치가 가장 중요한 전쟁터”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국가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를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본다. 반성서적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에게는 독재 권력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자체가 종교화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를 교회로 만들고자 한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고,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를 강요하면서 다른 종교와 이념을 배타적으로 탄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서적 인간관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은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하며,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하게

견제해야 한다. 정부는 외교, 국방, 공정한 법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검찰, 법원이 상호 권력 남용 방지를 제도화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책임지며, 그 이외의 권력은 개인, 가정, 교회, 지방의 자치 정부가 주민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율적으로 자기 책임을 지도록 행사해야 한다. 세금과 규제가 줄어들고,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는 형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이다.

반면 인본주의·사회주의 독재 정부는 인간 본성은 선하나 잘못된 사회 구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면서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 기본 소득 등 모든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대신 정부를 찾게 된다. 결국, “어떤 정부 형태가 신앙에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시스템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더 적합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분담

지방자치는 국가권력을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으로 나눈다. 중앙정부는 국가의 존립과 전국적·통일적 사안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공하도록 하는 수직적 권력분립 제도를 말한다. 즉, 국가권력을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말고, 지방정부와 나누어 행사하라는 헌법의 명령인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 전국적·통일적 국가 사무를 넘어,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지역경제, 주택, 교육 등의 사무에까지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해 왔다. 그 결과, 각 지방은 애항심과 창의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의 성과를 충분히 이루지 못했고,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려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려 했다면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권의 범위를 명확히 조정하고, 중앙정부가 보유한 재원의 상당 부분도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나뉘어야 했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8대 2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인권과 행복이라는 미명 아래, 인류 공통의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법률과 조례를 무분별하게 입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차별 금지법을 이유로 특정 종교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상규와 도덕,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국회와 중앙정부가 동성에 합법화 지지, 북한 동포의 인권침해를 외면한 채 추진

되는 위장된 평화, 국민통합 저해, 대한민국 의 정통성 훼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기독교신앙의 신앙교육 권리 제한, 교사 임용권 박탈, 과도한 기업 규제와 조세 제도 등을 입법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지지와 의사를 반영한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 가족이 무너지면서 1인 가구가 급증했고, 개인은 위기에 처해도 도움을 청할 곳조차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특히 청년들은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해 결혼마저 포기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죄를 지어도 벌 받지 않는 치외법관적 특혜를 제도화하며 또 다른 불의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압도적 다수가 지배하는 국회와 강력한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노무현 정부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지방 균형 발전을 외쳐 왔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은 더 심화했고, 지방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었다. 중앙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지방분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고만 투입되었을 뿐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는 계속 악화하고, 중앙집권 구조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방을 살릴 유일한 길은 성서적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는 것이다. 외교와 국방, 대외경제, 국가 치안, 대법원과 같은 국가적 사무를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방권력기관(지방법원, 지방경찰, 지방경찰 등)은 주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권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치 권력의 독주를 지방정부가 견제하고,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회복과 번영의 길

지방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많은 유권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했다. 결국,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역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첫째, 유권자는 후보자가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성과를 이루어 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탁월성과 헌신, 그리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춘 후보자인지 검증해야 한다. 주민들이 책임 있게 지도자를 선출할 때 비로소 정치인은 유권자를 두려워하게 된다.

둘째, 유권자는 각 정당이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 어떤 정책과 성과를 보여 왔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국가안보,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 변화, 공교육 문제 등에 대해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였는지 아니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확산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투표해야 한다.

셋째, 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후보들이 올바른 역사관, 청년 일자리,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안전, 치안과 교육 정책 등을 자유민주적 가치와 윤리관에 따라 어떻게 실현해 왔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유권자의 신중한 선택이 지역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유권자의 삶의 문제는 국가의 도움 없이도 개인, 공동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다음세대에게 대책없이 재정 부담을 떠넘기며 무책임한 각종 복지 및 교육 정책을 남발하며 마치 정치 권력이 유권자의 구세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주와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는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정치 구조라는 점에서 반성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약자가 보호받는 공동체 형성, 양성평등과 가족의 가치 존중, 그리고 지방의 검찰·경찰·법원이 지역의 질서와 정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와도 맞설 각오가 되어 있는 능력 있고 용기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서적 세계관과 책임 있는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만일 이러한 후보가 없다면, 이는 교회가 다음세대의 지도자를 충분히 길러 내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유권자는 성서적 세계관을 가진 자유민주적 가치와 우리 사회의 도덕·윤리관을 공고하게 할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정치적 사명이 있다.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사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 땅을 고치리라”는 성경 말씀(대하 7:14)대로, 성서적 세계관을 가진 후보를 선출하면, 대한민국이 유럽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한 회복과 번영의 길로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투표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성경적 가치와 공의를 실현할 후보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신앙인의 의무이다. 따라서 성도가 투표할 때 반드시 후보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검증하고 신중하게 투표해야 한다.



열린울타리 가족 캠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열린울타리, 결연가정, 보육원 아동과 ‘가족 캠핑’

사회선교본부 온누리울타리 소속 열린울타리지역팀이 지난 5월 24~25일 강원도 홍천 더 파크12에서 ‘열린울타리 가족 캠핑’을 개최했다. 결연 가정 부모와 보육원 아동, 열린울타리 리더십 등 120여 명이 참가했다.

열린울타리는 보육원 아동과 결연 가정을 연결해서 정서적 유대와 신앙 안에서의 돌봄을 지원하는 사

역팀이다. 이번 가족 캠핑은 지역팀 내 결연 가정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교류하는 장(場)이었다. 가정별 바비큐 파티, 예배, 나이트 어드벤처, 야외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양정국 성도(열린울타리)는 “소망 이(가명)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들뜬 모습을 보니까 기쁘고, 동역자들과 격려와 위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고백했다.

정태경 장로(온누리울타리 담당)는 “결연 가정이 함께 모여 어려움을 나누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룹 모임이 필요했다”면서 “아이들이 결연 가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 말레이시아 선교단체와 업무협약

올해 ‘CGN Malaysia’를 설립 예정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이 말레이시아 선교단체 ‘JOYManna’와 미디어 사역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5월 26일(화) CGN 본관 비전홀에서 협약식이 있었다. 전진국 장로(CGN 대표), 진수재 선교사(JOYManna 대표) 등 양 기관 임직원과 협력 사역자, 말레이시아 SIB교단 멸랑캅바루교회 청소년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CGN은 올해 하반기 ‘CGN인도네시아’를 통해 말레

시아에 제작센터 ‘CGN Malaysia’를 설립하고 협력하게 된다. 원주민들을 위한 현지 언어 콘텐츠 제작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교회 콘텐츠 무료 제공, 미디어 아카데미 개설 등을 할 예정이다.

JOYManna는 2008년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진수재 선교사가 설립한 미디어 선교단체다. 말레이시아 오지 원주민 마을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예배처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다.

CGN과 메가존클라우드, 감사패 및 후원금 전달식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과 메가존클라우드가 지난 5월 21일(목) 메가존 과천시옥에서 감사패 및 후원금 전달식을 했다. 전진국 장로(CGN 대표), 이주완 의장(메가존)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GN이 메가존클라우드에 감사패를 전달했고, 메가존클라우드는 CGN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CGN 글로벌 문화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예정이다.

전진국 장로는 “CGN과 메가존클라우드가 협력하며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CGN 풍당의 클라우드 및 기술 고도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협력 파트너사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 선교 세미나 개최

2026 비즈니스 선교 세미나가 ‘한동대학교가 꿈꾸는 비즈니스 선교 시스템’을 주제로 6월 13일(토) 양재온누리교회 온유희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6월 10일까지 QR 코드로 하면 된다.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회비는 1만 원. 한동대학교 박성진 총장이 강의한다. 문의: 010-9908-0800



5월 세례자

〈서빙고〉
김관영 500806
김성연 851113
여진구 640529
이미경 690114
이숙진 760906
장영민 571004
장예나 940620
유아
김다인 250102
김성연 김경미
김리은 251126
김은찬 차수민
김지은 250502
김대중 김수정
김혜진 220707
김성연 김경미
오현서 250612
오예준 김효진
정윤호 260219
정재교 장은희
정지호 240906
정재교 장은희
최현민 240524
최진우 이지해
황소리 220626
황성후 장혜정

〈양재〉
김기수 490208
윤주영 820109
차소연 890501
유아
김사랑 250602
김요한 김지혜
김예준 240811
김대엽 한아름
유채하 250325
유재영 임다희
지엘리 250720
지창락 서은혜

〈대학청년〉
■여호수아
박윤범 911224
입교
김셋별 950730

■허브
강지원 050524
입교
김희수 060927

■J4U
유아
김시은 251125
김영범 윤진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 마무리

비서구권 교회지도자, 온누리교회 리더십 참석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가 막을 내렸다.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 5월 19일(화)부터 24일(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 김사무엘홀에서 진행됐다. 비서구권 교회지도자,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선교사역팀 리더십, 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에서는 온누리교회 선교 비전과 사역 노하우 등을 비서구권 교회 지도자들과

나눴다. 설교와 강의, 소그룹 토의, 선택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등 목회자와 선교사역자 20여 명이 강의했다.

김홍주 목사는 “이번 콘퍼런스가 선교 비전과 목회 방향에 깊은 도전을 받고, 각자의 목회 현장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박지혜 기자

18기 파워임팩트 참가자 모집

6월 13일부터 8월 8일까지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3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도곡교육관 B동 2층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6월 10일(수)까지 QR 코드로 하면 된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그 부모다. 회비는 1인 10만원, 2인 15만 원(부모반, 자녀반 별도, 부부 2인 등록하면 25% 할인).

문의: 010-6476-0524



장애인사역본부 ‘모자이크스쿨 요리교실’

7월 4일까지 매주 토 오후 12시 30분

장애인사역본부가 ‘모자이크스쿨 요리교실’ (이하 모자이크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요리실습을 한다.

모자이크 요리교실은 최영화 강사의 지도로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조리실습실에서 열린다. 지난 4월 18일(토) 첫 수업을 시작으로 7월 4일(토)까지 총 8회 진행된다. 김치볶음밥과 달걀프라이, 카레라이스와 어묵볶음, 미역국과 소시지야채볶음, 떡만둣국과 오이무침 등을 만든다.

/ 홍하영 기자

‘탁구와 함께하는 선교 이야기’

온누리탁구선교회, 성도 등 32명 참석

스포츠전도팀이 ‘탁구와 함께하는 선교 이야기’를 5월 26일(화)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개최했다. 탁구선수 및 동호인, 체육계 종사자, 스포츠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 등 32명이 참석했다.

탁구와 함께하는 선교 이야기에서는 온누리탁구선교회의 실제 선교 현장 이야기와 간증, 스포츠 선교의 중요성과 비전 등을 공유했다.

온누리탁구선교회 코치진의 레슨과 연습경기 등 탁구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박현 팀장(스포츠전도팀)은 “스포츠가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쓰이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오늘 함께한 성도들이 작은 탁구공으로 Acts29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남현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라오스 나사라 마을 신규 보건소 준공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5월 27일(수) 라오스 나사라(Nasala) 마을에서 신규 보건소 준공식을 했다. 김광동 대표(NGO 더멋진세상), 정영수 대사(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 라오스 정부 관계자, NGO 더멋진세상 임직원,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라오스 나사라 마을 보건소는 부지 승인을 포함해 약 3년 동안의 준비 과정과 5개월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보건소에는 혈액검사기와 초음파 장비 등 현대 의료 시설을 갖춰 주민들에게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장로칼럼

나는 어떤 어른인가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존철살인(寸鐵 殺人)’은 짝막한 경구나 단어로 사람을 감동하게 하거나 사물의 핵심을 찌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한마디 말로 기분이 좋아지고, 엔도르핀이 저절로 솟아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반면에 꾸념과 한탄, 불평하는 말은 듣는 이에게 짜증을 일으키고 화를 내게 만들기 마련이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험담과 헛된 소문의 말은 실어 나르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말로 교제를 나누면 영까지 맑아진다.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말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로 향기 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침묵은 깊고 단단한 말이다. 무력한 말, 의미 없는 말, 기만하는 말을 누르며 웅변하는 것이다. 말 안 하느니만 못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말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다.

옛날 어른들은 육신의 고달픔이 문제여서 휴식이 필요했다. 하지만 요즘 어른들은 세상의 말 때문에 정신이 고달프게 피로해서 휴식이 필요하다. 근심과 걱정, 불안과 상실, 절망은 지나친 경쟁과 비교가 만들어 낸 부산물이다. 사람이 편안히 살아가려면 산갈이 많은 마음의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인간은 본디 땅에 속한 존재로 어디론가 마음에 쓰레기를 비울 곳을 찾아 나서야 한다. 하지만 현대인은 거의 땅을 밟을 일이 없는 높은 아파트에서 살아간

다. 인간이 땅과 분리된 삶에 매여 살아간다면 삶의 의미는 점점 더 식어갈 것이다.

지금은 ‘어른’이란 말이 ‘꼰대’로 여겨지는 시대다. 나이와 사회적 지위, 가진 돈이 어른임을 결정하진 않는다.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철학과 신념을 갖고 행동에 옮길 줄 알아야 어른이다. 생각과 느낌, 의지가 조화를 이루며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른이다.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배려심을 가진 사람이 어른이다. 사리분별이 명확하고, 매사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이 어른이다. 교제할수록 존경심이 우리나라오는 사람이 어른이다. 고정관념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른이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소통해야 한다. 설령 생각이 달라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배려와 나눔, 희생의 시작이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등은 거짓말할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앞모습은 표정과 제스처를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뒷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진실한 모습은 정면이 아니라 무심히 돌아선 모습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모습으로 하루를 버티지만, 진심은 자신도 모르는 뒷모습에서 흘러나온다. 그 뒷모습으로 우리는 기억되곤 한다. 사람을 떠올릴 때 마지막 순간의 분위기가 오래 남는 것도 그래서인지 모른다. 어쩌면 첫인상보다 중요한 것은 끝 인상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확증편향(確證偏向), 선택적 공유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어르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리라.

권사칼럼

큰엄마의 밥상



한숙영 권사
(이촌공동체, 2000선교본부 멤버케어팀)

요사이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꼰대’라고 부르며 가까이 오지 않으려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서 가까이 있어도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빠말라(빠가 보일 정도로 매우 마른 몸매를 뜻하는 표현)’를 소망해서 밥을 새 모이만큼 먹는다고 들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만난 젊은이들은 ‘한동대학교 MK(선교사 자녀)’다. 그들은 어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고, 뷔페 상차림에서 적어도 세 접시를 수북하게 가져다 맛나게 먹는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예쁘고, 귀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18년 전, 양재온누리교회 권사님 몇 분이 한동대 MK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먹이고 싶다는 열망으로 시작한 사역이 있다. 2000선교본부 멤버케어 팀장이던 나는 10년 전부터 이 사역에 합류했다. 1년에 한두 번 한동대를 방문해 MK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고 비전을 나누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다. 이 모임이 바로 ‘MK LOVE FEAST’, 한동대에 재학 중인 MK들을 초대해 함께 밥을 먹으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다. 멀리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알기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청년들에

게 밥을 먹이고 있다. 부모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큰엄마’가 되어 해마다 밥상을 차리고 있다.

故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이신 김영애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어느 날 머리카락을 무지개색으로 곱게 염색한 청년을 보시며 ‘참 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이 다가와 인사하며 본인이 한동대 학생이라고 해서 기가 막혔다고 하셨다. 그런데 훗날 그 청년이 잘 자라서 지금은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올해 5월 열린 LOVE FEAST 행사에서 어느 MK가 “선교사 자녀가 아니라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그 말을 듣는 우리도 함께 웃었다. 그 이야기가 100% 농담임을, 그 청년이 선교사 자녀로서의 삶을 매우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전을 나눈 청년 중 몇 명은 자신도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기도제목을 내놓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너무 귀해서 와락 안아주고 싶다. 내가 봐도 이리 귀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귀하게 보실까? 이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울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들이 한동대에서 들은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말씀대로 언젠가는 세계로 나가 세상을 하나님 뜻에 합한 곳으로 바꿀 것이다. “공부해서 남 주지”라는 표어대로 한동대에서 보고 배운 것을 남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리라 확신한다. 지금도 그들의 부모님들은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신다. 이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한동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 세상을 밝히는 귀한 임무를 완수하리라 기대하며 그들을 축복한다.

신앙에세이



하성희 목사
(경서공동체)

봄기운이 완연했던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강서공동체 권사님들과 함께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원을 찾았다. 모임 장소와 가까운 절두산 순교기념관에 조금 일찍 도착해 홀로 둘러보았다.

절두산 순교지는 양화진과 가까운 곳에 있지만, 가톨릭 성지라는 막연한 거리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들어서자 생각보다 훨씬 깊은 울림이 있는 공간이었다. 병인박해 때 수많은 성도가 순교했던 현장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평화로운 자리에 남아 있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 있으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이들의 시간이 마음 깊

이 스며들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래도록 묵상하고 싶은 여운을 남기는 장소였다.

권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양화진으로 이동했다. 양화진은 189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생을 마감한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대학생 시절 처음 해외 아웃리치를 갔을 때 선교사님에게 이곳의 존재를 듣고 여러 번 방문했는데, 이번 방문은 10여 년 만이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도슨트의 안내 덕분에 양화진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다. 선교사들의 삶과 한국 기독교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는데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복음과 교육, 의료선교를 위해 낯선 조선 땅에 왔던 그들의 헌신 앞에서 어느새 눈물이 흘렀다. 영상 속 선교사들은 먼 시대의 인물이 아니었다. 이름도, 언어도 낯설었던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익숙한 삶을 내려

놓았던 그들의 선택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했다.

자연스럽게 나의 지난 시간도 떠올랐다. 선교적 사명과 목회자의 소명 사이에서 고민하며 걸어왔던 시간들. 예전에는 단지 ‘헌신한 선교사들’로만 보였던 분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순종하며 걸어갔던 선교사님들의 그 발걸음이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묘원 투어 하던 그날은 유난히 햇볕이 따뜻했다. 눈부신 햇살 때문에 쓴 선글라스는 어느 순간 눈물을 가리는 도구가 되었다. 특히 한쪽에 자리한 작은 묘비들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태어난 해와 마지막 해가 같거나 한두 해 차이 겹쳐 이 땅에 복음을 심고자 했던 선교사 가족들의 희생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묘비 앞에 잠시 서 있는 동안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나도 대학생 때 선교사의 꿈을 품고 중국 우루무치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1년 반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 품었던 선교적 부르심은 지금까지도 내 삶의 중요한 소명으로 남아 있다. 이제는 내가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서, 아이들이 사역자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삶과 부담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 동시에 다시 도전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어떤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된다.

양화진에서의 하루는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했다. 사역의 열매보다 중심을 돌아보게 하였고, 일이 아닌 사명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목회를 감당해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하셨다. 조선이라는 낯선 땅을 품고 순종했던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나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되게 걸어가기로 소망한다. 함께했던 강서공동체 권사님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하루였다.

권사님들과 함께 양화진 순례

